

기아차 광주공장, 보행약자 위해 ‘경사로 개선’ 지원 나섰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 후원금 1000만원 전달 11월 설치 계획...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 발전 계기 되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보행약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2일 남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문화관에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강경식 상임대표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재규 시민감사위원에게 ‘경사로 개선사업’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 접근로가 없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약자들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전달된 후원금은 남구 관내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전액 사용된다.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9월 한 달간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11월에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2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문화관에서 ‘기아차 광주공장,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경사로 개선사업 지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희 기아차 광주공장 총무팀장, 강경식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상임대표,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감사위원회 위원장, 김부나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진=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소규모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지역사회 보행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여수시 묘도동주민자치위, 사랑애포 전등 리모컨 스위치 설치

주민주도형 마을특화사업... 거동 불편한 노년층 등 60세대에 지원

여수시 묘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설정희)는 지난 17일까지 2020 주민주도형 마을특화사업으로 ‘사랑애포 전등 리모컨 스위치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 묘도동 65세 이상 어르신은 420여명(35%)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 6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개소에 전등 리모컨 스위치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불편한 몸을 일으키지 않

고 누워서도 전등을 켜고 끌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사전예방과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설정희 위원장은 “사랑애포 전등 리모컨 스위치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리모컨 작동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편리하다고 밝게 웃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앞



“모든 것이 행복하고 묘도동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기자

고흥군, 치매안심마을 오색송편 나눔 행사

환자·가족·치매안심센터 직원 함께 만들어 독거어르신들께 전달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2일 2020년 신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포두면 신기마을에서 추석맞이 오색송편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고흥군은 치매안심마을을 2019년 5개 마을, 2020년 1개 마을을 지정하여 인지강화교실 및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조건은 인지 저하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이번 오색송편 만들기 행사는 치매안심마을 ‘힐링데이’ 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함께 오색송편



을 만들어 독거 어르신 및 마을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내 이웃 다시 한 번~ 찾고 보고 알리고”

보성읍, 희망드림협의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



보성군 보성읍희망드림협의회(공동위원장 조영우, 민간공동위원장 임광호)는 22일 보성향토시장에서 추석맞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성읍

정복지센터 직원 및 희망드림협의회 위원 등이 함께해 추석에 맞이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언제든지 보성읍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홍보했다. 조영우 보성읍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통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굴되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보성읍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주 동구, 1인 가구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자동 안부 콜 발송 등 모니터링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광주 동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군인 1인 가구 대상자들의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통신사와 연계해 일정기간 수신과 발신 이력 이 없는 경우 자동 안부 콜을 발송한다.

2차 안부 콜까지 미수신되면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안부확인 알림이 통보되는 서비스다. 알림 통보를 받은 동 담당자는 유선이나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게 된다.

김미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